



스리랑카의 2021년 "GMO 반대 히스테리"

이 전자책은 스리랑카의 2021년 GMO 금지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둘러싼 부패를 조사하고 경제적 압력을 통해 GMO 채택을 시행하기 위한 WikiLeaks 노출 전략과의 유사점을 검토합니다.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

목차(TOC)

1. 🇱🇰 스리랑카의 GMO 반대 히스테리

1.1. 📉 경제 붕괴

1.1.1. 😬 Genetic Literacy Project는 Anti-GMO 히스테리 에 대해 말합니다.

1.1.2. 👉 미국 과학 협의회: GMO 반대 운동가들의 책임

2. 의심스러운 상황

2.1. 금지 기간 동안 GMO 수입

📄 미국 문서에는 2023년에 법안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2.2. 💰 대통령이 국고를 비웠다

2.3. 😬 IMF는 경제제재를 통해 GMO를 강제한 이력이 있다.

2.3.1. 🇭🇺 헝가리, GMO 금지 이유로 IMF 퇴출

2.3.2. 🇺🇸 WikiLeaks: 미국은 GM 작물 반대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유기농업 실험: 자세히 살펴보기

3.1. 🇱🇰 스리랑카 경제는 관광에 기반을 두고 있다

3.2. 🚫 정부가 원자재 수입을 금지해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3.3. 🧑 농부들은 유기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3.4. 😬 전염병, 높은 가격, 시간 없음

4. 결론



स्त्रीररकर क्कुरे रररर

스리랑카 의 2021년 GMO 금지

부패와 경제재난에 관한 조사보고서

2 021년 스리랑카는 100% 유기농 법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GMO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과학 단체에서 *GMO 반대 히스테리*라고 묘사한 이 결정은 국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금지령을 둘러싼 사건, 그에 따른 경제 붕괴, 부패를 암시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조사합니다.

챕터 1.1.

GMO 금지와 경제 재앙

GMO를 지지하는 과학계의 저명한 목소리인 유전적 문맹 퇴치 프로젝트 (Genetic Literacy Project)는 상황을 *GMO 반대 히스테리*와 무모한 녹색 정치 수용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기아에 빠뜨린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 반 GMO 히스테리에 대한 스리랑카의 비참한 '녹색'포용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전 대통령이 2021년 GMO를 금지했을 때 농업 생산량은 40% 급감했습니다. 그가 지난 7월 폭동으로 나라를 떠났을 때 10가구 중 7가구가 식량을 삭감했고 170만 명의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기에 처했다.

원천: 유전적 문해 프로젝트 (PDF 백업)

마찬가지로, 미국 과학 및 보건 협의회(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는 경제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GMO 금지에 돌렸습니다.

(2022) Anti-GMO 그룹, 스리랑카의 경제 재난에 대한 책임 회피

스리랑카는 지난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악한 실험을 했다. 유기농 식품 및 반 GMO 활동가들의 영향력 아래 정부는 합성 살충제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가를 완전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여 대다수의 농부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도구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의존하는 작물.

원천: [미국 과학 위원회 \(PDF 백업\)](#)

의심스러운 상황

0 | 러한 과학 단체들은 스리랑카 위기의 원인이 GMO 반대 정서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부패와 관련된 상황을 암시하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금지 기간 동안 GMO 수입

추정되는 GMO 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21년에 1억 7,900만 달러 상당의 GMO 식품을 수입했습니다.



Report Name: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nual - 2022

Country: Sri Lanka

스리랑카의 GMO 작물 재배법에 관한 미국 보고서

(2023) 미국 보고서, 스리랑카의 GMO 식품 생산 확인

미국과 스리랑카는 상호 유익한 농업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GE) 작물과 동물의 수입은 2021년에 1억 7,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아직 GMO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국가생물보안법 제정을 위한 생물보안 법률 초안은 법무부와 함께 법무장관과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천: 농업정보.lk | 미국 농무부 문서

이 문서는 금지 기간 동안 상당한 GMO 수입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가 GMO 작물을 재배하고 2023년 상용화 계획에 대한 입법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통령의 위법행위

GMO 금지 기간 동안 **Gotabaya Rajapaksa** 당시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모한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내부자에 따르면:



(2023) 유기농업 정책이 스리랑카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들은 여러 부서에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빈 금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할 돈이 없다.

원천:  **විකල්** (PDF 백업)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은 유기농업 이니셔티브 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리적 동기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IMF 구제금융과 잠재적 강제

폭동으로 인해 국가를 떠난 Rajapaksa는 29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 금융이 경제 붕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F가 경제적 압력을 통해 GMO 채택을 집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이 성명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 전 세계적으로 반민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십 개국에서 빈곤, 비참함, 궁핍을 증가시키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 이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3) 스리랑카 대통령은 경제 붕괴에 대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천:  **Mint**

IMF의 개입은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2012년  헝가리 사례에서는 국가 지도부가 GMO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 IMF 지원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GMO 작물을 채택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외교 문서에 대한 WikiLeaks의 폭로와 함께 농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패턴을 시사합니다.

(2012) 헝가리, GMO 와 IMF 폐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GMO 거대 기업인 몬산토를 국외로 몰아내어 1000 에이커 이하의 땅을 갈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에 대한 출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와 GMO 산업 간의 관계와 IMF를 통해 헝가리에 부과된 제재에 대한 Wikileaks 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더 아이러니하게도 있습니다.

원천: [The Automatic Earth](#)

(2012) 미국, GMO 반대 국가와 무역 전쟁 시작

원천: [Natural Society](#)



WikiLeaks: 미국은 GM 작물 반대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GMO를 먹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케이블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몬산토(Monsanto)와 바이엘(Bayer)과 같은 GM 회사를 위해 직접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GMO 반대자들은 보복과 고통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챕터 3.

유기농업 실험: 자세히 살펴보기



리랑카의 유기농업 계획의 여러 측면은 그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기: 이 실험은 스리랑카의 관광 의존 경제가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은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스리랑카 휴가 - 가이드 자연 투어 및 탐험


수입 제한: 정부는 특정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하고 농부들이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준비 부족: 화학 비료에 익숙한 농부들은 적절한 훈련이나 지원 없이 갑자기 유기농 방법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가격 인상: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염병과 관련된 경제적 압박과 결합되어 상품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스리랑카의 GMO 금지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둘러싼 사실은 단순한 *GMO 반대 히스테리*를 넘어서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금지 기간 동안의 대규모 GMO 수입, 대통령의 비윤리적 행동, 유기농업 계획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은 모두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학 단체들은 이번 재난의 원인이 GMO 반대 정서라고 비난하지만, 조사 결과 상황은 좀 더 미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리랑카의 사례는 농업 정책 결정, 특히 우생학이나 *인간중심적 GMO*와 관련된 경우 투명성과 윤리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줍니다.

December 16, 2024에 인쇄됨



GMO 논쟁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